

제목	국문	비타민 C 섭취와 허혈성심질환의 관련성에 관한 환자-대조군 연구			
	영문	Vitamin C intake and risk of ischemic heart disease in Korean men: a case-control study			
저자 및 소속	국문	오경원 ¹ , 남정모 ² , 이강희 ² , 심지선 ¹ , 서일 ² 연세대학교 대학원 보건학과, 연세대학교 국민건강증진연구소 ¹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²			
	영문	Kyungwon Oh ¹ , Chungmo Nam ² , Kanghee Lee ² , Jeeseon Shim ¹ , Il Suh ² Department of Public Health, Graduate School of Yonsei University, Institute for Health Promotion,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¹ ,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²			
분야	역학 [심혈관질환]	발표자	오경원 [일반회원]	발표형식	구연
진행상황	연구완료				
<p>1. 목적</p> <p>비타민 C 와 허혈성심질환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서로 상반된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즉 비타민 C 의 섭취가 허혈성심질환의 발생을 예방한다는 보고가 대부분이지만, 허혈성심질환 발생에 영향이 없다는 결과도 보고되고 있다. 또한 비타민 C 의 항산화기능은 산화적 스트레스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흡연율이 서구에 비하여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이 관련성은 서구의 연구결과와는 다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환자-대조군 연구를 수행하여 한국 남자에서 비타민 C 의 섭취와 허혈성심질환과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p> <p>2. 방법</p> <p>환자군은 1995 년 10 월 30 일부터 1996 년 7 월 31 일까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연세의료원 심혈관센터에 입원한 심근경색증과 협심증 환자중 혈관조형술로 관상동맥질환이 확진된 초발환자중 남자 108 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조군은 동기간동안 연세의료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안과와 정형외과에 입원한 환자중 환자군의 연령군에 따른 빈도짜짓기에 의하여 선정된 남자 142 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직접면접으로 일반적 특성과 일상생활습관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시행하였고, 반정량적식품섭취빈도법에 의하여 비타민 C 섭취를 측정하였다. 비타민 C 의 섭취를 대조군의 분포에 기준하여 3 분위로 분류한 후, 일반적 특성과 영양소의 섭취를 단순비교하였고, 로지스틱 분석에 의하여 비타민 C 를 가장 적게 섭취하는 군에 비하여 가장 많이 섭취하는 군의 허혈성심질환 발생의 교차비와 95% 신뢰구간을 추정하였다.</p> <p>3. 결과</p> <p>비타민 C 의 섭취를 3 분위로 분류하였을 시, 비타민 C 의 섭취가 많은 군이 나이가 적고, 흡연율과 고지혈증 과거력이 낮은 반면, 비만한 경향을 보였다. 영양소의 섭취에서는 비타민 C 의 섭취가 많을수록 에너지, 지질, 다불포화지방산, β-카로틴, 비타민 E 의 섭취가 많은 반면, 콜레스테롤과 포화지방산의 섭취는 큰 차이가 없었다. 비타민 C 를 가장 적게 섭취하는 군에 비하여 비타민 C 를 많이 섭취하는 군의 허혈성심질환 발생의 교차비는 다른 허혈성심질환 위험요인과 에너지, 지질, 다른 항산화비타민의 섭취를 통제한 후 0.34 (95% 신뢰구간 0.13-0.90) 였다. 또한 비타민 보충제를 복용한 경우를 제외하여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다음으로 흡연력에 따라 비타민 C 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비흡연군이면서 비타민 C 를 많이 섭취하는 군에 비하여 흡연군이면서 비타민 C 를 적게 섭취하는 군의 허혈성심질환 발생의 교차비는 8.14 (95% 신뢰구간 1.29-51.3) 였다</p>					

4. 고찰

본 연구결과에 의하여 비타민 C 의 섭취 증가가 허혈성심질환 발생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제안할 수 있다. 특히 비타민 C 가 허혈성심질환 발생에 미치는 영향은 산화적 스트레스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우리나라와 같이 흡연율이 높은 경우에는 흡연율을 줄이는 사회적 노력과 아울러 비타민 C 를 충분히 섭취하도록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